

★ EBS 연계 기출 작품 ★

GLE 영어국어 전문학원

메리타스

㉠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.

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**부주지행역사**
오십 원짜리 갈비가 기름 텅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**사소한일**
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령탕집 **폐지 같은 주인년**한테 욕을 하고
옹졸하게 욕을 하고

한 번 정정당당하게
불잡혀 간 소설가를 위하여 **사회문제**
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
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
이십 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**사소한일**
찾아오는 야경꾼만 중요하고 있는가.

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
가로놓여 있다.

㉡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. **추경서변화**
부산에 포로 수용소의 제집사 야전 병원에 있을 때
정보원이 너어스들*과 스폰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
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
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.
너어스들 옆에서

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폰지 만들기와
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. **사소한일**
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
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늬의 투정에 진다.
떨어지는 은행나무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

㉢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. **절정 위에는 서 있지**
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. **비법통**
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
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!

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.
㉣ 이발쟁이에게
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
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
야경꾼에게 이십 원 때문에 십 원 때문에 일 원 때문에
우습지 않느냐 일 원 때문에

㉤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나.
바람아 먼지가 풀아 난 얼마큼 작으나.
정말 얼마큼 작으나.....

- 김수영, 「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」 -
성찰

* 야경꾼: 밤 사이 화재나 범죄가 없도록 살피고 지키는 사람
* 너어스들: 간호사들

41. ㉠~㉤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㉠: 자조적인 표현을 통해 **시적 의미를 강조**하고 있다.
- ② ㉡: 과거의 경험을 제시하여 **정서의 변화**를 보여주고 있다.
- ③ ㉢: 의도적 행각이를 통해 **시적 긴장감**을 유지시키고 있다.
- ④ ㉣: 의미가 대비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**상황을 부각**하고 있다.
- ⑤ ㉤: 동일 시구의 반복과 변주로 **주제 의식**을 강조하고 있다.

42. <보기>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

— <보 기> —

일상적 제재와 비속어의 사용은 자신의 **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근성을 피하지 않고** 정직하게 바라본 김수영 시의 특징이다. 이 **정직한 자신과 세계를 바로 응시할 수 있게 하고, 자기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.** 이러한 비판 정신은 **기존 질서에 대항하고 역사와 현실의 불합리에 맞서는 힘이 된다.**

- ㉠ 폐지 같은 주인년이라는 표현은 **설령탕집** **주인의 속물적 근성에 대한 맹렬한 비판**이겠군. **비속어** **≠ <날기>가 비판(성찰)**
- ② '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' 있다는 생각은 **소시민성에 대한 자각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어.**
- ③ '전통은 유구'하다는 인식은 **과거 자신의 처신에 대한 정확한 응시에 근거한 것이겠군.**
- ④ '절정 위에' 서 있는 것은 **기존 질서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것이라 하겠어.**
- ⑤ '나'의 반성은 **자기비판을 넘어 역사와 현실의 불합리에 맞서는 힘이 될 수 있겠군.**

성찰 ↑ 자각

성찰 (자조적) 동행